

석사학위 논문

## 해방 전후 이태준 소설의 현실인식 연구

김 명 훈

2011년 8월 현대문학 석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조남현 선생님

본고의 목적은 ‘큰 서사’와 ‘작은 서사’ 개념을 통해 해방 전후 이태준 소설에 나타나는 현실인식의 변화 양상을 설명하는 것이다. 해방은 이태준 소설 연구에 있어서 지속과 단절의 문제를 끊임없이 환기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인식되었다. 이태준의 해방 이전 소설의 경우 의미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해석투쟁의 장이라 불릴 만큼 연구자에 따라 양극단의 해석이 제출되고 있는 반면, 해방 이후의 작품에서는 비교적 분명한 이념적 지향이 나타나며 해석의 편차 역시 적은 편이다. 즉 이태준 소설의 문제성은 의미의 불투명성과 해방 전후의 분절성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태준 소설에 나타나는 불투명성과 분절성을 효과적으로 설명하려면 일제말기에서 해방까지의 소설들을 포괄할 있는 적절한 개념과 함께 해방에 대한 재인식이 요청된다. ‘큰 서사’, ‘작은 서사’ 개념과 해방의 사건적 성격을 고려하여 해방 전후 이태준 소설을 분석해보면 이태준 소설의 불투명성과 분절성은 대체로 질서정연하게 설명된다.

‘국민문학’이 제창되고 신체제에의 협력이 강요되는 일제말기의 상황에서 조선의 문인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현실에 대응한다. 그러나 적극적인 저항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체제에 협력하지 않고 문학 행위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주관을 배제한 채 눈에 보이는 현상을 서술하

는 것에 만족하거나 신변적인 내용을 다룸으로써 현실과의 관계를 차단하는 방식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현실과의 적극적인 관계 맺기는 협력과 저항 중에 어느 한쪽의 논리를 수리하지 않고는 실행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문학’의 창설, 조선어 금지 등의 현실을 고려할 때 저항이 표면화될 수는 없었다. 일제말기의 상황에서 현실과 관계 맺기 위해서는 체제협력의 위험을 무릅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태준은 ‘큰 서사’와 ‘작은 서사’를 병행함으로써 일제말기의 현실에 대응한다. 일제말기 이태준의 ‘큰 서사’는 사회적 권력과 이념에 대한 욕망을 드러냄으로써 현실의 질서와 관계를 맺는다. 그런데 일제말기에 발표된 『사상의 월야』, 『별은 창마다』, 〈둘다리〉, 〈제1호선박의 삽화〉 등은 모두 ‘큰 서사’에 해당하지만 현실의 질서와 관계 맺는 방식은 다소 차이가 있다. 『사상의 월야』와 〈둘다리〉의 인물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현실의 질서와 대결하거나 긴장을 유지하는 반면, 『별은 창마다』와 〈제1호선박의 삽화〉의 인물들은 신체제의 질서를 수용함으로써 자신의 내면성을 상실한다. 저항의 표면화가 불가능한 일제말기의 상황에서 체제협력에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채 창작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현실과의 관계를 차단해야만 했다. 일제말기 이태준의 ‘작은 서사’는 신체제 질서와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서사적 시도였다. 〈토끼 이야기〉, 〈사냥〉, 〈석양〉, 〈무연〉, 『왕자호동』 등은 현실의 정당화 원칙들을 배제하거나 외면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신체제의 정당화 원칙들을 빗겨나간다.

한편 미완의 기획이면서 동시에 혁명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었던 해방은 조선인에게 민족의 유토피아적 미래를 선회하기 위한 현재의 가능성으로 인식되었다. 조선인에게 해방은 단지 열강의 이해관계에 의해 주어진 상황이 아니라 진리의 계기로서 작용하는 일종의 ‘사건’이었다. 특히 문인들은 이러한 해방의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서사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식민지 시기 동안 위축되었던 민족적 정체성의 추구하고 현실에 대한 총체적 인식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역사나 사회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큰 서사’가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해방 이후 이태준 소설의 ‘큰 서사’ 지향은 크게 보아 두 가지 방향을 가진다. 하나는 자신과 조선인의 정체성을 구축하려는 서사이며, 다른 하나는 사회주의 이념을 정당화하려는 서사이다.

해방 이후 ‘큰 서사’의 두 가지 방향은 해방 직후 조선인의 지상명령인 ‘과거청산’을 통한 ‘나라 만들기’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과거청산’이 완수되어야만 건전한 ‘나라 만들기’가 이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지상명령은 인과적으로 현상한다. 이태준은 『불사조』를 통해 ‘과거청산’과 민족 정체성의 재구축을 시도하지만 이는 미완의 기획으로 끝나게 된다. 작가의 경험을 토대로 한 〈해방전후〉에서는 과거 행적과 이념 선택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냄으로써 왜곡된 자신의 정체성을 노출한다. 즉 〈해방전후〉의 현은 ‘과거청산’의 단계에서 충분한 내적 성찰을 거치지 않은 채 좌익문인들의 인력에 의해 ‘나라 만들기’로 나아가는 것이다. 『농토』에서도 소련과 고리키라는 외부적 인력이 북한 정치 체제를 정당화하는 요인으로 나타난다. 『농토』에서 이태준은 고리키의 ‘사회주의적 리얼리즘’을 적용하여 본격적인 사회주의 서사를 시도하지만 그 과정에서 당의 역할을 과대평가하는 한계를 드러내기도 한다. 반면에 〈먼지〉에서는 소련 사회주의 이념을 조선에 적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학이라는 전통을 재맥락화함으로써 조선적 사회주의의 가능성과 새로운 창작 방법을 실험한다.

해방 이전 ‘큰 서사’와 ‘작은 서사’를 병행하던 이태준은 해방 이후 ‘작은 서사’를 배제하고 ‘큰 서사’로의 지향을 분명히 한다. 해방 전후 이태준 소설의 지향은 ‘큰 서사’에 대한 불신이 ‘작은 서사’로 표출된다고 보았던 포스트모던 이론가들의 주장과는 역방향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현상은 이태준 문학의 성격과 일제말기, 해방이라는 특수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만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문제이다. 이태준 소설의 지향은 신체제와 해방에 대한 작가의 현실인식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결국 해방 전후 이태준 소설은 현실의 요구와 개인의 욕망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할 수밖에 없었던 한 문인의 내면적 고투이면서 동시에 역사의 요동 속에서 자기를 보존하려는 민족의 자화상이었던 셈이다.